

우울증에 관한 언론 보도 분석: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노수진* · 윤영민**

유명인의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우울증이 지목되면서 언론보도 전반에서 우울증에 대한 보도량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러한 보도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을 건강행동이 필요한 질병으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7년부터 약 5년간 온라인 전문 뉴스 미디어의 우울증 보도를 살펴보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신문과 텔레비전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본 연구는 최근 이용 빈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한 온라인 보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우울증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보원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유명인 환자였고, 일반인 환자와 비교해 4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심지어 환자가 아닌 유명인도 일반인 환자보다 2배 이상 많이 등장했고,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도 유명인 환자의 절반 수준 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대상 기사의 약 3분의 1이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불우한 환경이나 소심한 성격 등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을 언급한 기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소수의 기사만이 뇌신경 손상, 호르몬 변화와 같은 신경생물학적 원인을 언급했다. 우울증의 치료방식 역시 분석 대상 기사의 절반 이상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의사 상담과 약물치료 같은 적극적 치료방식을 제시한 기사가 식이요법, 운동 및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같은 소극적 치료방식을 제시한 기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전반적으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에 관해 언급하는 정도는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보다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원인과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사 내에서 우울증의 원인으로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많이 제시될수록 적극적 치료방식과 소극적 치료방식 모두 제시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울증 보도에 가장 많이 나타난 뉴스 프레임은 개인이 겪은 일화를 소개하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었고, 사건, 사고, 분쟁을 다룬 갈등 프레임과 홍보 및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프레임이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우울증 관련 보도에 대해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이 회복한 후 이룬 긍정적인 업적이나 성취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주제어: 우울증, 온라인 뉴스, 내용분석, 원인, 치료방식, 유명인

1. 문제제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1)에서 실시한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반해, 주요우울장애의 유병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울증은 자살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정신과 질환으로 자살시도자의 추정진단 중 약 56%를 우울증이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은 15.3%에 불과해 2006년 조사의 8.7%보다는 높아졌지만, 미국의 39.2%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11).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수에 비해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학과 석사과정(soojinr@gmail.com)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ymyoon@korea.ac.kr), 교신저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행동을 촉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아직도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질환의 치료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지지하는 정도는 낮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06; 양옥경, 1998; 한덕웅·이민규, 2003).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있으나, 병원에 가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는 꺼린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그 이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나아가 사회적 ‘낙인(stigma)’이 환자의 자존감을 해치고 치료 의지와 효과를 제한한다고 설명한다(양옥경, 1998; 조은영, 2000; Kessler, et al., 2001; Philo & Secker, 1999; Sirey, et al., 2001; Wahl, 1999).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인식 및 태도에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서미경·권영준·정희연, 1993; 한덕웅·이민규, 2003; Borinstein, 1992; Domino, 1983; Leo & Lacasse, 2008; Thornton & Wahl, 1996; Wahl & Lefkowitz, 1989). 미디어 이용자가 가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이 미디어의 정신질환 재현 방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특히 미디어 이용자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경직되고 한층 더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Philo, 1997). 역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미디어가 그 영향력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대중의 편견을 감소시키고, 원인과 치료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 더 많은 잠재적 우울증 환자들이 의학적 치료를 받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미디어의 우울증 보도 행태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울증에 초점을 두고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울증에 대한 인터넷 뉴스 보도를 내용 분석하였다. 2011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이고 10-30대 젊은 층의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이용자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약 85%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 기사를 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및 30대의 이용률이 각각 99.6%와 97.3%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 창구가 된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추가와 질병관리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고 그 정보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뉴스의 우울증에 관한 보도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류시원·하유정, 2004; 송태민 외, 2011).

한편 유명인의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우울증이 지목되면서 언론보도 전반에서 우울증에 대한 보도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이현정, 2012; 조수영·김정민, 2010). 유명인의 우울증에 대한 보도는 매스미디어 담론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확산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이현정, 2012).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서 우울증은 건강행동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심층적으로 다뤄지기 보다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신변잡기 보도 차원이거나 연예인이 출연한 텔레비전 토크쇼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²⁾ 외국의 건강보도에서도 유명인의 사례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Corbett & Mori, 1999),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유명인의 우울증과 그로 인해 초래된 자살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이슈가 흥미 위주의 연예 기사에까지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만약

1) 휘성 우울증 충격고백 “겁나서 사람 못만났다” (OSEN, 2010. 9. 16)

2) 장윤정 “일이 너무 많아 한동안 우울증 시달려” (OSEN, 2010. 7. 1)

미디어가 질병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는 주요 동력이라면, 이러한 유명한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는 대중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심각한 건강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건강행동을 촉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울증은 질병 특성상 원인과 치료방식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이해, 적극적인 건강행동을 실천하려는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초점은 온라인 뉴스 미디어가 환자 개인의 건강행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우울증을 재현하고 있는지에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다른 건강보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의 건강보도 연구들은 주로 언론이 질병에 대해 개인의 행동과 책임 중심으로 뉴스를 재현하는 것을 비판하고 사회구조적 요인과 사회·정책적 노력 위주로 뉴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정의철, 2011; 조수영·김정민, 2010). 반면에 본 연구는 우울증 이슈에 있어서 언론보도가 오히려 환자 스스로의 건강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유명인이 중심이 된 기사에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에 관한 정보 제시가 달라지는 지도 알아보았다. 그 밖에 프레임 분석을 비롯한 우울증 보도의 전반적인 특성도 함께 조사하였다.

2. 선행문헌 검토 및 연구문제

1) 우울증과 언론보도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의학적 질환을 말한다(APA, 2000). 흔히 접할 수 있고 친숙하게 인식되지만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으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질병이기도 하다(유상미 외, 2011). 의학적으로 우울증은 심한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미분류형 우울장애로 구분되는데(유상미 외, 2011),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대부분 이를 통칭하여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매스미디어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전반에 대한 사회 인식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Borinstein, 1992; Leo & Lacasse, 2008; Philo, 1997).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다룬 신문기사에 노출된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에 비해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한 위험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Thornton & Wahl, 1996), 정신질환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에 노출된 관객들 역시 이러한 영화에 노출되지 않은 관객들에 비해 정신질환자를 덜 동정하며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Domino, 1983; Wahl & Lefkowitz, 198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매스미디어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나아가 낙인찍기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hilo, 1997).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사회적 낙인은 특정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인 편견이 뒤따르며, 이러한 편견은

결국 행동적 차원에서 구체적 차별 행위에 이르기 때문이다(Corrigan, 2007).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 때문에 미디어가 우울증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관련 선행 연구 중 우울증 만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우울증과 더불어 조현병(정신분열병), 사이코패스,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 전반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정신질환 전반이 매스미디어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문헌을 검토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질환이 매스미디어에서 부정확하고 편향되게 재현되는 것은 다양한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디펜바흐(Diefenbach, 1997)는 미국 4대 방송사의 주요시청시간대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TV에서 묘사되는 정신질환자는 드라마, 시사프로그램, 리얼리티 쇼 등의 장르 구분 없이 보통의 미국 시민에 비해 10배정도 위험하게 그려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왈과 동료들(Wahl, Wood, & Richards, 2002)의 연구에서는 미국 신문의 정신질환 보도의 가장 중심적인 테마가 위험성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묘사가 주로 폭력, 범죄, 역기능(dysfunction), 장애(disability)와 같은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뉴질랜드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거의 절반에서 정신질환 관련 언급이 있었고 그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Nairn, Coverdale, & Panapa, 2000). 이 프로그램들에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캐릭터들은 주로 조롱, 회화,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되었고, 정신질환에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이해와 동정과 같은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영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도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와 근거 없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Philo, 1997).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연구들도 미디어가 정신질환자를 위험하고 공격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외 연구들과 유사하다. 김성완·윤진상·이무석·이형영(2000)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분석하여 정신병에 대한 기사의 70%가 부정적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음을 보고하였고, 이충순·이동윤·황용석(1996)도 주요 일간지들이 정신질환자의 범법행위 위주로 위험성 측면만을 부각시켜 정신보건 분야의 편견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두 연구가 중증 정신질환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인과 같은 중범죄와 연계되는 기사가 많았던 반면, 비교적 최근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가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국내 주요 5개 일간지 기사를 분석한 국가인권위원회(2008)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간지에서 가장 많이 다룬 정신질환 유형이 우울증과 조울증을 포함하는 기분장애(23%)이고, 가장 많은 의학정보가 제공된 정신질환 유형 역시 기분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비전 뉴스의 정신질환 보도를 분석한 조수영·김정민(2010)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정신질환의 종류는 우울증·조울증이고 전체 정신질환 보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2012)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신문 기사의 수가 지난 20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현정(2012)에 따르면 우울증 관련 기사 빈도의 증가는 연예인, 정치인, 경영인 등 유명인들의 우울증 사례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기사 빈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 사건들 이후 우울증의 심각성을 자살 문제와 연관시키는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우울증 자가 체크리스트와 같은 정보들이 제공되는

에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 조수영·김정민(2010)의 텔레비전 정신질환 보도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명인이 언급된 뉴스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신분열증, 강박증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 관련 전체 보도에서의 비율이어서 실제 우울증 관련 뉴스에서 유명인의 언급 비율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한 유명인의 증언은 그 질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대중의 개인 건강 행동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도 높다. 호주의 유명 가수 카일리 미노그(Kylie Minogue)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음이 알려진 후 유방암 검진을 받은 25-44세 사이의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이러한 순기능의 좋은 예다(Sharma, 2008).

그러나 유명인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보도가 우울증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고 숨어있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보다는, 자칫 말초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흐를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 최근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의 신변잡기 보도에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을 흥미 위주로 언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³⁾⁴⁾ 외국의 건강보도에서도 정보원으로서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이 빈번히 제시되고 있지만(Corbett & Mori, 1999),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는 정신건강 이슈의 상품화라는 각도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미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 보도시 우리나라 일부 뉴스와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장례식을 생중계 수준으로 보도하고 빈소에 조문 오는 연예인들을 집중 취재하는 등 연예인의 자살을 뉴스 상품화한 전례가 있다(김인숙, 2009). 같은 맥락에서 시청률과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우울증에 대한 보도가 유명인 중심의 흥미 위주 내용으로 구성된다면(혹은 반대로 유명인에 대한 보도에서 우울증이 흥미를 주기 위한 소재로 사용된다면) 이 안에서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전문적인 내용이 소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유명인을 이용한 우울증의 뉴스 상품화에 그칠 뿐이며, 우울증 환자의 건강 행동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관한 보도에서 유명인 정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기사 내 중심 정보원의 차이가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에 관한 정보 제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Wahl(2003)은 정신질환 보도에서 한때 정신질환을 겪었던 사람들의 회복이나 성취와 같은 긍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거의 없고, 실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언론 보도에 제시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관점이 보도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능력 또한 없다고 보는 사회 통념과 유사한 보도 패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유사한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2008)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이 회복 가능하다는 내용이 전체 기사의 9%에 불과하였다. 이 기사들에서는 실제 회복한 사람을 소개하고 조기 치료와 주위의 관심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사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때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의 회복이나 성취 여부가 기사에 제시되는지 또한 알아보았다.

3) 차인표 발인 뒤통재, 의미의 경중 울리나(배국남의 직격탄 (마이데일리, 2011. 6. 16)

4) '자살' 없인 드라마 못 만드나(조선일보, 2013. 1.9)

2) 우울증과 뉴스 프레이밍

프레이밍은 언론보도에서 어떤 이슈나 사건의 특정한 면을 선택,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Entman, 1993). 기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특정한 관점을 선택하고 이 관점들이 뉴스 텍스트 안에서 현저성(salience)을 띄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뉴스 프레이밍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언론 보도가 프레이밍을 통해 구성된 사회적 현실과 의미가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프레이밍은 수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어떠한 이슈나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cheufele, 2000; Tankard, 2003). 건강이슈에 관한 보도에서도 이러한 프레이밍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개인이 특정 질병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진단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사람들은 미디어의 보도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미디어의 프레임은 대중의 인식과 태도, 행동방향, 행동의지 등 건강 인식과 행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Whiteman, Cui, Flaws, Langenberg, & Bush, 2001).

뉴스 프레임은 뉴스를 생산하는 당사자인 미디어가 뉴스를 제시하는 일관된 관점이자 틀이기 때문에 ‘뉴스 가치’와 같은 기존의 뉴스 보도 관행이나, 미디어 조직의 내부적 특성 및 상업적 이해 등이 뉴스 프레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슈에 관계없이 일정한 몇 가지 프레임이 뉴스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간적 흥미, 갈등, 책임귀인, 도덕, 경제 프레임 등은 다양한 뉴스 주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프레임들이라고 할 수 있다(Semetko & Valkenburg, 2000).

건강보도를 주제로 귀납적으로 뉴스 프레임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앤세저와 파워스(Andsager & Powers, 1999)는 Time, Newsweek과 같은 시사 잡지들이 유방암에 대한 기본 정보와 치료방식 프레임, 원인과 예방 프레임, 치료비용과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프레임 등 3가지 프레임을 구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같은 연구자들이 분석한 여성 잡지들에서는 경제 프레임 대신 암이 환자와 가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이야기, 즉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99, 2001).

국내 연구로는 정의철(2011)이 의학적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예방 프레임, 위기 프레임, 갈등 프레임, 사회적 프레임, 상업적 프레임, 정책 프레임 등 8가지 유목을 상정하여 텔레비전과 신문의 유방암 보도를 분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유방암 보도에는 의학적 프레임이 약 34%,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약 17%, 예방 프레임이 15%, 위기 프레임이 14%로 많이 나타났다. 텔레비전의 정신질환 뉴스를 조사한 조수영·김정민(2010)은 정의철과 유사한 7가지 프레임 유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절반에 가까운 약 47%의 뉴스가 정신질환을 인간적 흥미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의학적 프레임이 약 30%로 나타났고 사회적 프레임이 19%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에 예방 프레임, 정책 프레임, 갈등 프레임, 경제적 프레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증에 관한 언론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찾기 힘들지만,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볼 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우울증이 정신 건강이라는 특수한 이슈이긴 하지만 이 이슈 역시 미디어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제시하는 일관된 관점이자 틀 안에서 보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울증 관련 온라인 보도에서도 다양한 뉴스 주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뉴스 프레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둘째, 좁게는 기존의 건강보도와 유사한 틀 안에서 우울증에 관한 언론보도

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국내의 건강보도 선행문헌에 의학적 프레임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많이 나타난 만큼 이러한 경향이 우울증 보도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뉴스의 연성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고 흥미 위주 기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박광순·안종묵, 2006; 양진웅·김경호, 2006; 최민재·김위근, 2006), 우울증 관련 온라인 보도에서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나 갈등 프레임과 같이 연성화 경향을 보여주는 프레임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인간적 흥미 프레임, 의학적 프레임, 갈등 프레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3)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서미경·김정남·이민규, 2010). 우울증 환자들은 사회적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단을 회피하거나, 설사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서미경·김정남·이민규, 2010; Sirey, et al., 2001). 사회적 편견이 우울증 환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재활은 물론 이들의 건강 행동에도 장애가 되는 것이다.

정신의학계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의 건강 행동 제약이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1960년대 초부터 원인과 관련한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스트레스, 학대와 같은 사회·심리·환경적 요인이 많이 언급되지만, 의학계에서는 정신질환 역시 타 건강 질환처럼 뇌의 화학적 이상, 호르몬 변화, 유전, 질병 후유증 등의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질병’이라는 것을 강조해왔다(APA, 2000).⁵⁾ 이를 통해 정신질환도 다른 질병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포지셔닝하고자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귀인이 사회적 낙인을 줄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캠페인(“A Disease like Any Other”)을 시행한 바 있고, 유사한 캠페인과 연구가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수행된 바 있다(Pescosolido, et al., 2010; Reade & Harré, 2001).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캠페인의 영향으로 우울증을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 귀인한 미국인이 1996년에는 54%였던 것이 10년 후인 2006년에는 67%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Pescosolido, et al., 2010).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보다 20년 후인 1995년에 오히려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이 신경계통의 이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환자와 가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한덕웅·이민규, 2003).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부모의 이혼, 나쁜 생활 환경 등에 귀인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08)의 2007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신경생물학적 요인보다 사회·심리·환경적 요인을 발병 원인으로 더 높게

5) 리오와 라카스(Leo & Lacasse, 2008) 같은 학자들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뇌의 화학적 이상에 원인이 있다는 이론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단지 정신의학과 제약업계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관련 언론 보도들도 미약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거나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이현정(2012) 또한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점차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맥락과 분리되고 생의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울증이 뇌의 장애로 간주되는 순간 고통의 원인과 치유의 방법은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적이고 의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에 대한 공중의 인식 형성에 매스미디어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놓고 볼 때 언론보도에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을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료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전문의 상담, 입원 및 약물 복용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치료 방식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보건복지부, 2006; 양옥경, 1998; 한덕웅·이민규, 2003) 더욱 그러하다.

국가인권위원회(2008)의 신문기사 분석에서는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사회적 고립, 무관심,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방식 같은 사회·심리·환경적 요인(73%) 신경전달 물질과 뇌장애와 같은 신경생물학적 요인을 지목한 사례보다(27%)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약 23%의 기사가 약물치료를 제시한 반면, 나머지 기사들은 가족의 관심, 인성 교육, 향기 치료와 같은 치료방식을 언급하였다. 김성완 등(2000)의 연구에서는 발병의 원인을 언급한 기사 중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기사는 약 24%에 불과했는데 원인을 뇌의 병, 뇌신경계 및 뇌기능 장애, 생물학적 소인 등의 의학적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반면에 발병 원인 관련 기사 중 다수인 76%가 사회·심리·환경적 요인을 편중되게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집단 따돌림, 심리적 충격, 스트레스, 가정문제와 같은 원인이 지적되었다. 치료방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는 전체 326건의 기사 중 28건에 불과했는데, 그 중 18건이 예방 및 재활 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었다. 조수영·김정민(2010)의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뉴스 중 약 10%가 신경생물학적 요인을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고, 51%가 가난, 가정적 스트레스 등 사회·심리·환경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약 39%의 뉴스는 원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전체 뉴스의 86% 이상이 구체적 치료방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상담과 약물 치료방식을 제시한 경우는 2.3%에 불과해 극히 미미했다. 이현정(2012)의 연구에서도 지난 20년 간 생물학적·유전적 원인을 명시한 기사는 약 10-30% 정도를 차지하고 사회적 원인을 언급한 기사는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페스코솔리도와 동료들(Pescosolido, et al., 2010)은 우울증에 대해 신경생물학적 귀인을 하는 사람일수록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치료, 병원 입원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방식에 찬성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치료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1996년의 75%에서 2006년의 85%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비율 증가에 신경생물학적 귀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으로 신경생물학적 원인을 꼽는 경우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해외의 예를 놓고 볼 때, 신경생물학적 귀인이 증가한다면 좀 더 다양한 치료방식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환자 개인의 적극적인 건강행동을 촉구하기에 용이한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전문 뉴스 미디어에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이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4)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전문 뉴스 미디어가 우울증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전반적인 보도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 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 나타난 우울증 보도의 특성은 무엇인가?

- 1-1. 우울증 보도에 나타나는 정보원은 누구인가? 유명인 환자 정보원과 일반인 환자 정보원의 비율은 어떠한가?
- 1-2. 우울증 보도에 한때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의 회복이나 성취가 나타나는가?
- 1-3. 우울증 보도에 어떤 뉴스 프레임이 나타나는가? 인간적 흥미 프레임, 의학적 프레임, 갈등 프레임의 비율은 어떠한가?
- 1-4. 우울증 보도에 원인이 언급된 기사 비율은 어떠한가?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이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 1-5. 우울증 보도에 치료방식이 언급된 기사 비율은 어떠한가? 적극적인 치료와 소극적 치료방식이 언급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우울증 보도에서 중심이 되는 환자 유형(유명인 혹은 일반인 환자)에 따라 우울증의 원인이 제시되는 정도가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우울증 보도에서 중심이 되는 환자 유형(유명인 혹은 일반인 환자)에 따라 우울증의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가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이 언급되는 정도와 적극적, 소극적 치료방식이 언급되는 정도 간 관계는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표본 추출

본 연구는 2007년 1월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2011년 10월 31일까지 약 5년간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우울증 관련 보도를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를 2007년 기사부터 포함시킨 이유는 2007년부터 유명인의 자살이 늘었고 이 때문에 우울증 관련 보도가 크게 늘었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이현정, 2012). 분석대상을 온라인 뉴스 미디어로 한정할 이유는 오늘날 인터넷이 뉴스 소비의 주요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우울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아본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기준의 하나로 발행부수를 꼽는데 반해, 온라인 미디어는 아직 객관적인 영향력 지표가 없다. 그러나 최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알아본 웹사이트 트래픽(traffic; 특정 사이트 방문자 수)은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미디어오늘, 2011. 7. 25). 이 조사에는 존재하는 모든 웹사이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위 100위에 언론사 외에도 기업 웹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상위 100 위 웹사이트 중 먼저 언론사들만 추려내고 이 중 오프라인 언론사의 온라인 버전(예: 매일경제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오프라인 신문도 함께 발행하는 언론사(예: 뉴스엔)들을 제외시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용하는 언론사는 순수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기자가 아닌 시민 기자에 의해 작성되

는 ‘오마이뉴스’는 타 언론사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100위 안에 남은 온라인 뉴스 미디어는 이데일리, 마이데일리, 프레시안, OSEN 등 4개 언론사였다. 이들 언론사는 각각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지만(예: 이데일리-경제, OSEN-연예) 이와 별도로 정치, 경제, 사회 기사 등을 모두 싣고 있으므로 종합 일간지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샘플 추출방법은 3가지 단계를 거쳤다. 1 단계는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조사 기간 동안 ‘우울’, ‘우울증’, ‘우울 증상’, 그리고 ‘우울 장애’를 제목 및 본문에 포함하는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었다. 검색 결과 4개 언론사에서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1,600건이 추출되었는데, 마이데일리는 2008년 1월부터 검색이 가능했으므로 기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 단계는 위의 모집단으로부터 샘플을 추출하는 것이었다. 내용분석에서 통계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샘플 수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내용분석에서 경로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각 변인 당 최소 20개의 사례가 필요하다는 점과(Riffe, Lacy, & Fico, 2005),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관행적으로 변인 당 최소 30개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참고하였다. 체계적 무작위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220개의 기사가 추출되었는데, 본 연구의 주요 변인 수가 7개이므로 최소 샘플 수로 정한 기준 보다 약간 많았다. 3 단계에서는 각 기사를 검토하여, 검색시 사용한 키워드가 비유적으로 사용되거나(‘환경 파괴로 우울증을 앓는 가을산’, ‘우울한 한국경제’ 등) 기타 건강 질환으로서의 우울증과 상관없이 해당 키워드가 사용된 기사를(‘영화 ‘우울증’ 시사회 개최’ 등) 제외하였다. 스트레이트 기사, 칼럼, 인터뷰 등은 분석대상에 모두 포함시켰고, 전문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아닌 독자 투고, 외부 필진이 쓴 상담 글 등은 제외하였다. 타 언론사에서 제공한 뉴스를 이용해(“노컷뉴스 제공”) 기사를 내보낸 경우 분석 대상으로 삼은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최종 분석에 포함된 샘플은 194개의 기사였다. 기사당 평균 길이는 244 단어였고 평균 글자 수는 약 814개였다. 참고로 조선일보 종합1면에 실리는 기사의 평균 길이는 200자 원고지 3.6매로(박재영, 2006) 이를 글자 수로 환산하면 720자여서 본 연구에 사용된 온라인 기사들이 약간 긴 편이었다. 분석 단위는 기사였다.

2) 조작적 정의와 코딩

정보원은 기사 내에 언급되는 개인으로, 정보원 유형은 ①일반인 환자(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묘사된 사람들 포함) ②유명인 환자(일반인 환자와 동일한 기준) ③환자를 제외한 유명인(기사 내에 등장하는 유명인 중 우울증을 겪는 환자 본인을 제외한 사람들. 주로 유명인 환자의 지인이나 동료로 언급되었을 경우 포함) ④환자 가족 ⑤의사(한 의사 포함) ⑥전문가(연구원, 심리학자 등 의사는 아니지만 관련 전문가) ⑦경찰 ⑧기타 ⑨없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정보원 유형 각각을 변인으로 취급하여, 각 기사 별로 각 정보원 유형이 몇 명 등장했는지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한 기사에 3명의 다른 의사가 등장하는 경우 의사 유형에 3명으로 코딩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이름의 정보원이 여러 차례 등장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보원으로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의사가 5차례 언급되는 경우에는 언급 횟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코딩하였다. 환자 정보원은 유명인과 일반인으로 세분화하였는데, 유명인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재계 인사 등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일반인은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원, 주부, 학생 등을 포함한다.

우울증 경험자의 회복이나 성취 언급은 기사 내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없음의 여부로 코딩하였다. 회복이나 성취는 우울증 경험자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그 결과로서 수반되는 개인적, 사회적 성취의 경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김성은은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여느 또래 학생들처럼 밝게 생활하고 있다.... 김성은은 현재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방과 후 활동으로 스쿨 밴드에서 보컬로도 활약하고 있다. 주중에는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교회활동을 열심히 하며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있다”와 같은 경우 회복이나 성취가 언급된 것으로 코딩하였다.

뉴스 프레임의 경우, 선행연구에서(정의철, 2011; 조수영·김정민, 2010) 제시한 한국 건강 보도의 프레임을 근거로 하여 ①의학적 프레임, ②인간적 흥미 프레임, ③예방 프레임, ④위기 프레임, ⑤갈등 프레임, ⑥사회적 프레임, ⑦상업적 프레임, ⑧정책 프레임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의학적 프레임은 원인과 증상, 검진 및 치료법, 의학적 발견 및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하고 의학/과학적 접근에 치중하는 프레임을 말한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한 개인이나 유명인이 겪은 일화를 제시하거나 관련된 이벤트를 소개하는 프레임이며, 예방 프레임은 예방행동이나 캠페인에 대해 주로 이야기 하는 보도 프레임으로 정의하였다. 위기 프레임은 우울증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사태의 급박성을 강조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경우, 갈등 프레임은 우울증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다루거나 우울증과 관련한 법적/도덕적 분쟁을 다루는 보도 프레임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프레임은 질병과 관련한 사회 구조, 정치/경제 문제 등을 다루는 경우이고, 상업적 프레임은 치료법과 약품 등 우울증과 관련한 건강 정보를 상업적 관점에서 다루고 특정 병원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보도 프레임이다. 특히, 인용된 정보원이 이니셜이 아닌 실명으로 거론되고 특정 병원 이름 혹은 특정 기업 이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홍보 및 프로모션 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두 상업적 프레임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프레임은 정부의 지원과 예산 등 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프레임이다. 한 기사 내에서 두 개 이상의 프레임이 나타날 경우에는 본문 재독해를 통해 지배적 프레임 한 개를 선택해 코딩하였고 프레임들이 경합해 지배적 프레임 한 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사 제목(헤드라인)과 리드(기사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우울증 원인은 기사 내에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을 말하는데, 크게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신경생물학적 원인은 뇌신경 손상과 호르몬 장애, 유전적 원인, 기타 질병에 의한 합병증 등을 말하고,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은 정서적 스트레스, 학대와 불우한 환경 등을 말한다. 우울증 원인은 2가지 단계로 코딩하였는데 먼저 각 기사별로 어떤 원인이(신경생물학적 원인, 사회·심리·환경적 원인, 2가지 원인 모두, 원인 제시 없음) 제시되었는지 코딩하였다. “~이 우울증의 원인이다”, “~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우울증의 원인을 지목하는 것만 코딩하였고, 제목에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등 우울증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기사이지만 기사 전반에 걸쳐 ‘우울증’ ‘우울증상’이라는 단어의 사용 없이 마음의 고생 및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울증의 원인을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코딩하였다.⁶⁾ 다음 단계로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이 기사

6) 예를 들어 한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경일은 오랜만에 무대에 선다는 설렘도 잠시 공백 기간 어깨를 짓눌렀던 아픈 상처로 인해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보였다. 한경일은 지난 2006년 1월 우여곡절 끝에 정규 4집을 발표했지만 대중들의 평가는 냉정했고 결국 앨범 활동을 접어야 했다. 당시 방송 활동을 통해 얼굴을 알렸지만 그나마도 잠시, 한경일은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에서 제시되는 정도를 코딩하기 위해 각 원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장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어 개수를 세어 각 원인에 관한 내용의 양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기사 내에 “내가 맡은 최영림이라는 역할이 온갖 삶의 굴곡을 겪는 어둡고 무거운 인물이었기에 그 캐릭터에 빠져들어 우울증까지 걸렸었다”고 언급한 경우, ‘캐릭터에 빠져들었던’ 경험을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문장의 단어 개수 16개를 코딩하였다.

치료방식은 기사 내에 언급되는 우울증 치료법 및 우울 증상완화 방법을 말하는데, 크게 적극적 치료방식과 소극적 치료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치료방식은 약물치료와 의사(한의사 포함) 상담 등이고, 소극적 치료방식은 증상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운동법 소개 및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등으로 정의하였다. 치료방식은 2가지 단계로 코딩하였는데, 먼저 각 기사별로 어떤 치료방식이 (적극적 치료방식, 소극적 치료방식, 2가지 치료방식 모두, 치료방식 제시 없음) 제시되었는지 코딩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울증의 치료방식으로 언급된 것만을 코딩하고, 우울증과 함께 종종 이야기되는 다른 질환(불안 증세, 불면증 및 수면장애 등)의 치료방식은 코딩에서 제외시켰다. 우울증 원인을 코딩한 방식과 동일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치료 방식을 제시하는 경우만 코딩하였고, 제목에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등 우울증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기사이지만 기사 전반에 걸쳐 ‘우울증 치료’ ‘우울증상 완화’ ‘우울증 벗어나는 길’ 등의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경우는 치료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간주하였다. 다음 단계로 적극적 치료방식과 소극적 치료방식이 기사에서 제시되는 정도를 코딩하기 위해 각 치료방식을 언급한 문장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단어 개수를 세어 치료방식 내용의 양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쉽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술자리 대신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충분히 쬐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경우,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충분히 쬐어 주는 것’은 소극적 치료방식으로 간주하고 해당 문장 전체 단어 15개를 코딩하였다.

분석 유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두 명의 코더가 표본의 약 10%의 기사를 분석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인은 Scott's Pi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우울증 경험자의 회복이나 성취에 대한 언급=.86, 우울증 원인=.89, 치료방식=.89, 뉴스 프레임=.93). 비율척도로 측정된 변인은 Pearson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정보원 변인=1.0(정보원 유형 각각을 변인으로 취급하여 9개의 변인 모두 1.0 기록), 우울증 원인(단어 수)=1.0, 우울증 치료방식(단어 수)=1.0).

4. 연구결과

<연구문제 1>은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 나타난 우울증 보도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연구문제 1-1>에서는 우울증 보도에 어떤 정보원이 등장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대상 온라인 매체의 우울증 관련 기사 194개 각각에서 1명 이상의 정보원이 나타나, 총 436명의 정보원이 제시되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정보원 유형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유명인 환자(27.8%)였고, 그 다음으로 환자의

잘 나오던 목소리마저 나오질 않았다.” 문맥상 앨범의 실패로 심각한 스트레스, 더 나아가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우울증 혹은 우울증상을 겪었다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제시한 것으로 코딩하지 않았다.

가족이(18.1%) 많이 나타났다. 일반인 환자(7.1%)와 비교할 때 유명인 환자는 4배 정도 많이 나타났고 환자가 아닌 유명인(16.5%)도 기사에 많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우울증 관련 기사에서 유명인이 정보원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의사나 다른 관련 전문가가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비율은 13.6%에 그쳤다. 기타로는 자살 등의 사건 사고와 관련한 목격자, 타 언론보도 인용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2>에서는 우울증 보도에 한때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의 회복이나 성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전체 표본 기사 중 약 18.6%만이 우울증 환자의 회복 혹은 성취의 경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기사가 우울증을 다루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난 경험이나 그 후에 이룬 긍정적인 업적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극복의 경험을 이야기한 소수의 예들도, 신앙의 힘 및 봉사 활동 등으로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한 문장 정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수준에 그치는 것들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및 우울증 극복 및 성취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 및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풀어낸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표 1> 정보원 유형과 환자의 회복(성취) 제시에 관한 빈도분석

| 정보원 | % |
|-------------|-------------|
| 유명인 환자 | 27.8 |
| 환자 가족 | 18.1 |
| 환자를 제외한 유명인 | 16.5 |
| 의사(한의사 포함) | 10.6 |
| 기타 | 9.9 |
| 일반인 환자 | 7.1 |
| 경찰 | 7.1 |
| 전문가 | 3.0 |
| | 100%(N=436) |
| 회복 혹은 성취 제시 | |
| 있음 | 18.6 |
| 없음 | 81.4 |
| | 100%(N=194) |

<연구문제 1-3>은 우울증 보도에 어떤 뉴스 프레임이 나타나는지, 인간적 흥미 프레임과 의학적 프레임, 갈등 프레임이 나타나는 비율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한 개인이나 유명인이 겪은 일화를 제시하거나 관련된 이벤트를 소개하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44.8%).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프레임은 갈등 프레임(22.7%)으로, 우울증과 관련한 사건·사고, 법적·도덕적 분쟁에 관한 기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상업적 프레임도 19.1%의 기사에서 주요 프레임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학적 프레임과 그 밖의 프레임들은 소수의 기사에 나타났고, 정책 프레임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우울증 보도의 뉴스 프레임 빈도분석

| 뉴스 프레임 | % |
|------------|-------------|
| 인간적 흥미 프레임 | 44.8 |
| 갈등 프레임 | 22.7 |
| 상업적 프레임 | 19.1 |
| 의학적 프레임 | 6.7 |
| 사회적 프레임 | 4.6 |
| 예방 프레임 | 1.0 |
| 위기 프레임 | 1.0 |
| 정책 프레임 | 0 |
| | 100%(N=194) |

<연구문제 1-4>는 기사에 우울증의 원인이 언급되었는지를 알아본 것이었다. <표 3>에 나타나듯이 분석대상 기사 중 32%에 달하는 기사가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을 언급한 기사는 전체 기사 중 56.2%였고 신경생물학적 원인을 언급한 기사는 7.7%에 불과했다. 즉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을 제시한 기사가 신경생물학적 원인을 제시한 기사의 7배 이상으로 월등히 많았다.

한편 사회·심리·환경적 원인과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기사에 제시된 양을 살펴보기 위해 각 원인을 언급한 문장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어 개수를 세었다. 분석 결과,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에 대한 내용이 3,096개의 단어 수를 기록하여,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내용의 708개 보다 월등히 많았다. 기사 당 평균 15.96개의 단어가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에 대해 기술된 반면, 기사 당 평균 3.65개의 단어가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대해 기술된 것이다.

<연구문제 1-5>는 기사에 치료방식이 언급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대상 기사 중 절반을 넘는(55.7%) 기사가 우울증의 치료방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약물치료와 의사(한의사 포함) 상담과 같은 적극적 치료방식을 제시한 기사는 전체의 24.7%였고, 식이요법, 운동 및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같은 소극적 치료방식을 제시한 기사는 11.9%였다. 즉 적극적 치료방식을 제시한 기사가 소극적 치료 방법을 제시한 기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한편 적극적 치료방식과 소극적 치료방식이 기사에 제시된 양을 살펴보기 위해 각 치료방식을 언급한 문장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어 개수를 세었다. 분석 결과, 적극적 치료방식에 대한 내용이 1,898개의 단어 수를 기록하여, 소극적 치료방식에 대한 내용의 1,579개 보다 약간 많았다. 기사 당 평균 9.78개의 단어가 적극적 치료방식에 대해 기술된 반면, 기사 당 평균 8.14개의 단어가 소극적 치료방식에 대해 기술된 것이다.

<표 3>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에 관한 빈도분석

| 원인 | % |
|----------------|------|
| 사회·심리·환경적 원인 | 56.2 |
| 신경생물학적 원인 | 7.7 |
| 2가지 원인 모두 제시 | 4.1 |
| 원인 제시 없음 | 32 |
| 100%(N=194) | |
| 치료방식 | |
| 적극적인 치료방식 | 24.7 |
| 소극적인 치료방식 | 11.9 |
| 2가지 치료방식 모두 제시 | 7.7 |
| 치료방식 제시 없음 | 55.7 |
| 100%(N=194) | |

<연구 문제 2>는 우울증 보도에서 중심이 되는 환자 유형(유명인 혹은 일반인 환자)에 따라 우울증의 원인이 제시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앞서 정보원 변인은 기사 내에 등장하는 유명인 환자와 일반인 환자의 수를 세어 기록하는 방식으로 코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재코딩이 필요하였다. 한 기사 내에 등장하는 유명인 환자와 일반인 환자의 비율을 살펴 유명인 환자가 일반인 환자에 비해 더 많이 등장한 기사인 경우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로, 일반인 환자가 유명인 환자에 비해 더욱 자주 등장한 기사인 경우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로 재코딩하였다. 유명인 환자와 일반인 환자가 동등한 수로 제시되었을 경우 중립적인 기사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계분석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기사 내 중심이 되는 환자 유형(유명인/일반인)이었고, 종속변인은 기사 내에서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는 정도(단어 수)와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는 정도(단어 수)였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우울증 환자 유형과 우울증의 원인이 제시되는 정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보다(평균=4.42)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평균=4.68)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제시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보다(평균=13.62)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평균=32.16)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이 제시되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보다 우울증의 원인(신경생물학적 원인)이건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이건)에 관해 언급하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우울증 환자 유형에 따른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이 제시되는 정도에 관한 일원변량 분석 (N = 149)

| 우울증 원인 | 유명인 환자 | | 일반인 환자 | |
|--------------|--------|-------|----------|--------|
| | 평균 | 평균 | F | df |
| 신경생물학적 원인 | .42 | 4.68 | 12.98*** | 1, 149 |
| 사회·심리·환경적 원인 | 13.62 | 32.16 | 12.55*** | 1, 149 |

*** p < .001

<연구 문제 3>은 우울증 보도에서 중심이 되는 환자 유형(유명인 혹은 일반인 환자)에 따라 우울증의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독립변인은 <연구문제 2>와 같이 기사 내 중심이 되는 환자 유형(유명인/일반인)이었고, 종속변인은 기사 내에서 적극적 치료방식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는 정도(단어 수)와 소극적 치료방식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는 정도(단어 수)였다. 통계분석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우울증 환자 유형과 우울증의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 보다(평균=5.82)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평균=13.84) 적극적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 보다(평균=2.24)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평균=12.42) 소극적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보다 우울증의 치료방식(적극적 치료방식이건 소극적 치료방식이건)에 대해 언급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우울증 환자 유형에 따른 적극적 치료방식과 소극적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에 관한 일원변량 분석 (N = 149)

| 우울증 치료방식 | 유명인 환자 | | 일반인 환자 | |
|----------|--------|-------|----------|--------|
| | 평균 | 평균 | F | df |
| 적극적 치료방식 | 5.82 | 13.84 | 5.32** | 1, 149 |
| 소극적 치료방식 | 2.24 | 12.42 | 17.92*** | 1, 149 |

** p < .05

*** p < .001

<연구문제 4>는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이 언급되는 정도와 적극적, 소극적 치료방식이 언급되는 정도 간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기사 내에서 우울증의 원인으로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많이 제시될수록 적극적 치료 방식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r=.173$). 또한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많이 제시될수록 소극적 치료 방식에 대한 언급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135$, 경계 유의 수준 $p=.06$). 다시 말해, 기사 내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에 있다고 설명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치료방식과 소극적 치료방식 모두 제시되는 정도가 높았던 것이다. 반면, 기사 내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사회·심리·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설명되는 정도는 적극적 치료방식과 소극적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표 6>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이 언급되는 정도와 적극적, 소극적 치료방식이 언급되는 정도에 관한 상관관계

| | 1 | 2 | 3 |
|--------------------|--------|------|------|
| 1. 신경생물학적 원인 언급 | - | | |
| 2. 사회·심리·환경적 원인 언급 | -.074 | - | |
| 3. 적극적 치료방식 언급 | .173** | .048 | - |
| 4. 소극적 치료방식 언급 | .135* | .023 | .050 |

* p = .06(경계 유의 수준)

** p < .05

5. 논의 및 결론

유명인의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우울증이 지목되면서 언론보도 전반에서 우울증에 대한 보도량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러한 보도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을 건강행동이 필요한 질병으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7년부터 약 5년간 온라인 전문 뉴스 미디어의 우울증 보도를 살펴보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신문과 텔레비전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본 연구는 최근 이용 빈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한 온라인 보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우울증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보원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유명인 환자였고, 일반인 환자와 비교해 4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심지어 환자가 아닌 유명인도 일반인 환자보다 2배 이상 많이 등장했고,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도 유명인 환자의 절반 수준 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우울증 관련 보도에 한때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이 회복한 후 이런 긍정적인 업적이나 성취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우울증 보도에 가장 많이 나타난 뉴스 프레임은 개인이 겪은 일화를 소개하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었고, 사건, 사고, 분쟁을 다룬 갈등 프레임과 홍보 및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프레임이 그 뒤를 따랐다. 의학적 프레임은 소수에 그쳤다. 분석대상 기사의 약 3분의 1이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불우한 환경이나 소심한 성격 등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을 언급한 기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소수의 기사만이 뇌신경 손상, 호르몬 변화와 같은 신경생물학적 원인을 언급했다. 우울증의 치료방식 역시 분석 대상 기사의 절반 이상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의사 상담과 약물치료 같은 적극적 치료방식을 제시한 기사가 식이요법, 운동 및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같은 소극적 치료방식을 제시한 기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전반적으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에 관해 언급하는 정도는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보다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원인과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사 내에서 우울증의 원인으로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많이 제시될수록 적극적 치료방식과 소극적 치료방식 모두 제시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전문 뉴스 미디어에 나타난 우울증 관련 보도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울증 관련 기사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내용 보다는 흥미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보원이 연예인 등 유명인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줄 의사 등의 정보원으로서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물론 질병 보도에 있어 유명인의 증언이 해당 질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며 관련 건강 행동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Sharma,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사들은 유명인 중심의 보도일 수록 일반인 중심의 보도에 비해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을 제시하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는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는 우울증을 원인 분석과 치료 과정이 필요한 건강질환으로서 진지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유명인에 대한 가십거리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이러한 기사들 중에는 많은 경우 기사 하단에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정 인물(주로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주로 TV 토크쇼) 등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재인용하고, 방송될 날짜와 방송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우울증이라는 중요한 정신건강 이슈를 연예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기사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홍보용 소재로 전락시킨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보도 양태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를 높이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의 뉴스 상품화는 해당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이해, 환자 스스로의 검진과 적극적인 건강행동을 촉진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사 안에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전문성 있는 내용이 소개되는 정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우울증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원인과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향후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보도에서 정보원 활용과 내용 구성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뉴스 프레임 분석에서도, 의학적 프레임보다 개인(주로 연예인)의 신변잡기 등을 다루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과 자살 등의 사건 및 사고를 다루는 갈등 프레임, 그리고 특정 병원이나 의사의 의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상업적 프레임이 많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우울증을 가벼운 흥밋거리 및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또 하나의 선정성 기제로 이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예이다. 특히 표본의 약 19%의 기사에서 특정 병원과 의사 이름이 실명으로 게재되어 우울증 질환이 하나의 상업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우울증의 증상, 검진 및 치료법 등 의학적 정보 제공 위주의 의학적 프레임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온라인 전문 뉴스 미디어의 우울증 보도는 앞서 밝힌 대로 유명인 위주의 보도, 흥미 위주의 보도, 상업적인 보도가 중심을 이루며, 이는 심각한 건강이슈인 우울증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우울증 관련 기사에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에 관한 논의가 현격히 부족한 편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공중의 인식 형성에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고려할 때(서미경·권영준·정희연, 1993; 한덕웅·이민규, 2003; Borinstein, 1992; Domino, 1983; Thornton & Wahl, 1996), 언론보도에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온라인 기사 중 3분의 1에 달하는 기사가 우울증의 원인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의 기사가 치료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신경생물학적 요인을 우울증의 원인으로 제시한 기사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신 가정문제, 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심리·환경적 요인을 지적한 기사들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 양태는 자칫 우울증이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유가 가능한 건강질환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감내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가 해결해줘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회·심리·환경적 요인 제기가 현실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심리·환경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울증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방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적극적인 건강행동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심리·환경적 요인의 제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나듯이 전문의 상담이건 운동과 대화이건 구체적인 치료방식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는 것은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제기될 때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잠재적 우울증 환자들이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재활하는데 기여하려면 신경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경생물학적 귀인이 전문의 상담 및 약물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방식에 동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Pescosolido,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을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 귀인하는 사람들이 1970년대 보다 오히려 최근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한덕웅·이민규, 2003). 또한 유병율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 전문적 치료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부, 2011; 양옥경, 1998; 한덕웅·이민규, 200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언론보도를 통해 잠재적 환자들 스스로의 우울증 원인과 치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우울증 관련 보도에서 한때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의 회복이나 성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실제 회복한 사람을 소개하거나 우울증에서 벗어난 후에 이룬 긍정적인 업적 등이 언급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Wahl, 2003). 주요 일간지를 분석한 선행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08)에서도 정신질환의 회복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난 기사가 매우 적었는데, 온라인 전문 뉴스 기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드러났다.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한 만큼, 향후 언론보도에서 회복과 긍정적 성취에 관한 논의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건강 보도 패턴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뉴스의 연성화가 심화되고 흥미 위주의 기사가 증가하는 것이 전반적 추세라고는 하지만(박광순·안종묵, 2006; 양진웅·김경호, 2006; 최민재·김위근, 2006) 건강질환 보도에서조차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기사, 상업성을 띤 기사, 전문성 있는 의학정보가 결여된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온라인 건강 보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한 창구가 된 만큼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우울증에 대한 보다 심도 깊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뉴스 미디어가 우울증을 어떻게 재현했는지 알아본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각광받는 온라인 전문 뉴스 미디어의 우울증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비교의 목적이려면 기존의 오프라인 보도를 함께 분석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양적 분석인 관계로, 질적인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들을 결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예를 들어 의사 정보원 중 한의사들이 일부 포함되었는데 한의사 중심의 기사들은 양의사들의 그 것과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원인 제시, 치료방식 제시, 상업적 의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유목화와,

질적·양적 분석방법의 병행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분석단위가 개별 기사에서 한 기사에 하나의 프레임이 있는 것으로 코딩했는데 이는 분석상의 편리함은 제공했지만 기사에 나온 모든 프레임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우울증은 자살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정신과 질환이다(보건복지부, 2010). 만약 미디어가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고 개인행동의 준거가 된다면, 결국 미디어가 우울증의 원인을 귀인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방식이 뉴스 소비자, 특히 잠재적인 우울증 환자의 인식 및 행동의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개인의 적극적인 건강행동을 촉구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한 올바른 보도 방향 시행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 김성완·윤진상·이무석·이형영 (2000).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병에 대한 기사 분석. 『신경정신의학』, 39권 5호, 838-848.
- 김인숙 (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 3자 효과: 언론의 연예인 자살보도에 대한 태도, 미디어 이용, 미디어 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권 3호, 5-36.
- 류시원·하유정 (2004).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97, 71-87.
- 박광순·안종묵 (2006). 포털사이트 프론트(front)페이지 뉴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199-226.
- 박재영 (2006). 뉴스 평가 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한국 저널리즘과 뉴스미디어에 대한 연차보고서』(147-220쪽), 서울 : 한국언론재단.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0). 마음의 감기 우울증 자가진단 해보세요!
 _____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서미경·권영준·정희연 (1993). 정신질환으로 인한 낙인에 기여하는 요인. 『순천향대학교논문집』, 16권 4호, 1183-1188.
- 서미경·김정남·이민규 (2010).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친숙함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5권 1호, 123-141.
- 송태민·이연희·이기호·박대순·진달래·박현애·안지영 (2011). 2011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옥경 (1998).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권, 231-261.
- 양진웅·김경호 (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섹션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다음과 네이버 뉴스탑(news-stop)에 노출된 연예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6년 봄철정기학술대회』, 14-34.
- 유상미·이민수·전태연·김희철·김재민·임현우·황선희 (2011).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이용한 우울증의 임상양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30권 2호, 553-570.
- 이효리 우울증 고백, 생방송 불발돼 한동안 우울증 시달려... (2009. 1. 18), 『투데이코리아』. <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code=&idxno=62568>.
- 이충순·이동윤·황용석 (1996).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질환자 범죄기사의 분석. 『신경정신의학』, 35권 5호, 1132-1144.

- 이현정 (2012). 1991~2010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우울증 담론의 변화와 그 문화적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45권 1호, 42-88.
- ‘자살’ 없인 드라마 못 만드나 (2013.1.9),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9/2013010900202.html
- 장윤정 “일이 너무 많아 한동안 우울증 시달려” (2010. 7. 1), 『OSEN』. <http://osen.mt.co.kr/article/G1007010071>.
- 정의철 (2011). 유방암 관련 언론보도의 프레임링 특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1권2호, 402-444.
- 조수영 · 김정민 (2010).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상파 TV 뉴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54권 5호, 181-204.
- 조은영 (2000). 정신장애인 편견극복 운동: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스티그마 줄이기.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65-86.
- 차인표 발인 뒤길래, 의미의 경중 울리나[배국남의 직격탄] (2011. 6. 16),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1106160833471114&ext=na>.
- 최민재 · 김위근 (2006).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437-463.
- 트래픽 200위 사이트 가운데 언론사 67개 - 랭킹닷컴 순위, 경제 · 스포츠지 약진... 네이버 뉴스캐스트 이후 인터넷 신문 대거 상위권 입성. (2011. 7. 25),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24>.
- 한덕웅 · 이민규 (2003). 정신질환에 관한 사회적 표상의 변화: 1976년과 1995년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권 1호, 191-206.
- 휘성 우울증 충격고백 “겁나서 사람 못만났다” (2010. 9. 16), 『OSEN』. <http://osen.mt.co.kr/article/G100916004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s. (DSM-IV-TR)*. Washington, D. C.
- Andsager, J. L., & Powers, A. (1999). Social or economic concerns: How news and women’s magazines framed breast cancer in the 1990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3), 531-550.
- _____. (2001). Framing women’s health with a sense-making approach: Magazine coverage of breast cancer and implants. *Health Communication*, 13(2), 163-185.
- Borinstein, A. B. (1992). Public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mental illness. *Health Affairs*, 11(3), 186-196.
- Corbett, J. B., & Mori, M. (1999). Medicine, media and celebrities: News coverage of breast cancer, 1960-1995.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2), 229-249.
- Corrigan, P. W. (2007). How clinical diagnosis might exacerbate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Social Work*, 52(1), 31-39.
- Diefenbach, D. L. (1997). The portrayal of mental illness on prime-time televi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3), 289-302.
- Domino G. (1983). The impact of the film.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on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Psychological Reports*, 53, 179-182.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Kessler, R. C., Berglund, P. A., Bruce, M. L., Koch, J. R., Laska, E. M., Leaf, P. J., Manderscheid, R. W., Rosenheck, R. A., Walters, E. E., & Wang, P. S. (2001).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untreated serious mental illness. *Health Services Research*, 36, 987-1007.
- Leo, J., & Lacasse, J. R. (2008). The media and the chemical imbalance theory of depression. *Society*, 45, 35-45.
- Pescosolido, B. A., Martin, J. K., Long, J. S., Medina, T. R., Phelan, J. C., & Link, B. G. (2010). “A disease

- like any other?" A decade of change in public reactions to schizophrenia, depression, and alcohol dependenc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7(11), 1321-1330.
- Philo, G. (1997). Changing media representations of mental health. *Psychiatric Bulletin*, 21, 171-172.
- Philo, G., & Secker, J. (1999). Media and mental health. In B. Franklin (Ed.), *Social Policy, the media and misrepresentation* (pp. 135-145). London: Routledge.
- Reade, J. & Harré, N. (2001). The role of biological and genetic causal beliefs in the stigmatisation of 'mental pati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10(2), 223-235.
- Riffe, D., Lacy, S., & Fico, F. (2005). *Analyzing media messages: Using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 research*. New York: Routledge.
- Scheufele, D. A. (2000).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revisited: Another look at cognitive effe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2&3), 297-316.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arma, P. S. (2008). Media's influence extends to cancer care. *JNCI*, 100(20), 1424-1426.
- Sirey, J. A., Bruce, M. L., Alexopoulos, G. S., Perlick, D. A., Raue, P., Friedman, S. J., & Meyers, B. S. (2001). Perceived stigma as a predictor of treatment discontinuation in young and older outpatients with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479-481.
- Tankard, J. W. (2003).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S. D. Reese, O. H. Gandy, Jr., A. E.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pp. 95-10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hornton, J. A., & Wahl, O. F. (1996). Impact of a newspaper article on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1), 17-25.
- Wahl, O. F. (1999). Mental health consumers' experience of stigma. *Schizophrenia Bulletin*, 25(3), 467-478.
- _____. (2003). News media portrayal of mental illnes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12), 1594-1600
- Wahl O. F., & Lefkowitz, J. Y. (1989). Impact of a television film on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521-528.
- Wahl, O. F., Wood, A., & Richards, R. (2002). Newspaper coverage of mental illness: Is it changing? *Psychiatric Rehabilitation Skills*, 6, 9-31.
- Whiteman, M. K., Cui, Y., Flaws, J. A., Langenberg, P., & Bush, T. L. (2001). Media coverage of women's health issues: Is there a bias in the reporting of an association between hormone replacement therapy and breast cancer? *Journal of Women's Health & Gender-based Medicine*, 10, 571-577.
- Wilson, C., Nairn, R., Coverdale, J., & Panapa, A. (2000). How mental illness is portrayed in children's television: A prospective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6, 440-443.

(투고일자: 2012. 11. 26, 수정일자: 2013. 01. 16, 게재확정일자: 2013. 01. 23)

ABSTRACT

Analyzing Online News Media Coverage of Depression

Soojin Roh* · Youngmin Yoon**

Media coverage of depression, the mental disorder, is on the high rise following the soaring number of reported celebrity suicide.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ttempt to get a glance on how online news media are portraying depression. The content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celebrity was the most cited source, outnumbering the others such as non-celebrity patients and experts. More than half of the sample attributed the cause of depression to socio-psychological factors. Medical consultation was the most reported means of treating depression among the sample, while over the half did not suggest any treatment methods at all. Overall, celebrity related news were less likely to talk about the cause and treatment methods. In addition, the more neuro-biological factors were designated as the main cause of depression in the articles, the more chances of treatment method of all kinds were brought up. The frame of human interest dominated a little less than half of the articles examined, and only few reported positive outcome or achievements after coping with depression.

Keywords: Depression, Content Analysis, Online News, Socio-psychological Cause, Neuro-biological Cause, Medical Consultation, Celebrity

* Master's student, Scho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